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IN TRI-VALLEY

주임신부 : 오대석 바 오 로 925-537-2909
사목회장 : 이주하 요 한 사 도 626-664-4508
총구역장 : 이성태 세레자 요한 925-667-0966
선종 봉사회장 : 김형근 어 거 스 틴 925-918-3979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26년 3월 29일 / 제735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s: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 사	교중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성 시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 설 한수현 크리스티나 제1독서 김용재 하상 바오로 제2독서 성홍순 다리야 입당 10 봉헌 218
Narrator Augustine Sung 1st Rdg Silvino Cruz 2nd Rdg Tyler Walton 성체 188, 특송 파견 123

제1독서 | 이사 50,4-7

화답 송 | 시편 22(21),8-9.17-18 7.19-20.23-24(◎ 2 7)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 필리 2,6-11

복음 환호송 |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 음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26,14—27.66

Date	Sunday School	Priest
3/29/2026	N	Fr. Paul
4/5/2026	N	Fr. Jim
4/12/2026	N	Fr. Gerald
4/19/2026	Y	Fr. Philip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정희 데레사, 정종락 필립보, 심견 바오로,
배정례 엘리사벳, 차인양 아가다, 이데이빗 바오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인간 1

새로운 여정의 시작

글/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면,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영화 매트릭스 역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품고 있는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인공지능은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그 가능성이 완전히 허구처럼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 의료 진단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예술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단순한 계산을 넘어 자연어(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학습하며, 창작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역할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최근 여러 담화문을 통해 기술 발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시각을 밝히셨습니다. 특히 제58차 홍보 주일 담화에서 교황님께서서는 인공지능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인간 존재의 본질과 특수성에 대한 더욱 심오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무조건적인 두려움을 갖기보다, 그것이 선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노 가르디니의 성찰을 인용하며, 기술과 과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성에서 시작해야 하며, 기술이

인간성을 빈약하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더 깊은 영성과 새로운 자유를 선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교회는 여러 문헌을 통해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책임 있는 개발을 강조하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윤리적 기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논의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AI 시대의 징표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인간적’ 인지를 재발견하라고 요청” (교황청 신앙교리부·문화교육부,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의 관계에 관한 노트, 112항)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이문제를 성찰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더욱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서 시작해, 기술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들, 그리고 AI가 우리 사회와 인간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인간의 본질을 고찰하며, 기술로는 대체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여정을 함께 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데 위의 글... 제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 ChatGPT-4o가 제 안내와 몇 차례의 피드백에 따라 쓴 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접적으로 느껴보시며 이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게 첫 글은 이런 방식으로 써 봤습니다)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 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STAR태권도 STAR TAEKWONDO 跆拳道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 (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5673 W. Las Positas Blvd #203 Pleasanton, ca 94588 realtor.tahk@gmail.com</p> 	<p>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p>미사후 신선한 건강식 맛집친교 어떠세요? KAKI SUSHI BISTRO 3120 Santa Rita Rd. Ste.G Pleasanton, CA 94566 925-484-4827 11:15AM open , 5:00PM open</p>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 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1,867	\$385	\$760	\$20	\$20	\$3,053

(수표는 Pay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성전봉헌금 정성진

• 감사헌금 이영희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배예자(3-7), 오택만(2,3), 장찬(3), 홍성호(3,4)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홍성호(3,4)

• Bishop's Appeal

홍성호(3,4)

그림 해설



풍경 하나 | 환호의 대열에 섰던
사람들과 불목의 대열에서 웅크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리저리 몰려 다니는
부화뇌동 사이를 뚫고, 그 다음의
시간을 바라볼 줄 아는 깨어 있는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눈길을
붙잡습니다. 붉고 푸른 아우성이
빠라처럼 텅구는 신작로를 지나,
고요한 내 일상의 살터로 성지를 옮겨
갑니다. 바라볼 때마다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물어올 이 성지를!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3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군비 감축과 평화

국가들이 실질적인 군비 감축, 특히 비핵화로 나아가고, 세계 지도자들이 폭력이 아닌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도록 기도합니다.

For disarmament and peace

Let us pray that nations move toward effective disarmament, particularly nuclear disarmament, and that world leaders choose the path of dialogue and diplomacy instead of violence.



큐알코드 스캔하고

온라인 봉헌 페이지로 바로 가기

Scan To Online Donate

하나비 스시
계상진 빈첸시오
조성아 데레사
927 Main Street A
Pleasanton, CA 94566
Tel) 925-596-3645

친절하고 꼼꼼한 부동산, 끝까지 책임집니다!
니콜라오
Aiden Kim 김현우
925.389.2463
McGuire Olson REAL ESTATE TEAM
Broker Associate DRE#01983236
COMPASS

PETSMART VETERINARY SERVICES
한국어 상담 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CA 94568
925-644-3114

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

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

엘리트학원
ELITE EDUCATIONAL INSTITUTE
www.eliteprep.com
Elite San Ramon (925) 234 - 9853
3160 Crow Canyon Rd #190 San Ramon
sanramon@eliteprep.com
Elite San Jose (408) 266 -3838
1375 Blossom Hill Rd #8 San Jose
sanjose@eliteprep.com

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

광고를 모집합니다.
TVKCC 홍보부
hongbo@tvkcc.org
925-871-9746



공지사항

● 전례 및 주요 일정

- 3월29일(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9AM)
- 4월2일(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8PM, 한·영 통합), 특별헌금 (가난한 이들), 발씻김 예식
- 4월3일(금) 십자가의 길 (3PM, 한·영 통합), 주님 수난 성금요일 (8PM, 한·영 통합) 특별헌금 (예루살렘 성지 복구)
- 4월4일(토) 파스카 성야 (8pm, 한·영 통합), 세례식, 미사 후 간식 나눔(성전 홀·마당)
- 4월5일(주일) 주님 부활 대축일 (한국어 9:30AM, 영어 11AM)

● 모임 안내

구분	일시	장소
성가브리엘 복사단	3월 29일(주일) 12 PM	Rm A & Rm B
마태오 4반	4월 4일(토) 2 PM	이영숙 로사 덕
소공동체	4월 5일(주일) 11 AM	Rm A

● 성모회 신부님과 함께하는 점심

- 일시 : 3월 30일(월)
- 시간: 10AM-12:30PM
- 장소: Round House Restaurant San Ramon

● 여성 제16차 꾸르실로 참가자 모집

- 일시: 7월 16일(목)-19일(주일)
- 장소: St. Clare's Retreat (2381 Laurel Glen Rd., Soquel, CA)
- 신청마감: 3월 31일(화)
- 문의: 김현희 바드리시아 (510) 396-4740

● 십자가의 길 봉사 일정

4월 3일(금) 3PM	루카 7, 8반(오후3시)
--------------	----------------

※ 담당 봉사팀뿐 아니라 모든 신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님수난 감실 성체조배 시간표

4월2일(목) 10 PM	성가대
4월2일(목) 11 PM	마태오6, 7, 루카8
4월3일(금) 12 AM	마태오1, 2, 5
4월3일(금) 1 AM	마태오4
4월3일(금) 2 AM	루카1, 2
4월3일(금) 3 AM	루카3, 4, 5, 6
4월3일(금) 4 AM	마태오3
4월3일(금) 5 AM	요한
4월3일(금) 6 AM	루카7

※신심단체 및 친목단체, 개인적인 참여도 모두 환영합니다.

● 영세자를 위한 트라이벨리 공동체의 9일 기도 지향

- 영세 예정자: 고광덕(마태오 4반), 기호성(루카 3반), 김정례(루카 5반), 김형주(요한 1반), 박우성(마태오 5반), 연제승(마태오 2반), 이영화(마태오 2반)
- 3/29: 영세자와 그 가족들
- 3/30: 영세자와 본당 교우들의 성화
- 3/31: 영세자와 병자들의 쾌유
- 4/01: 영세자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 4/02: 영세자와 성숙한 신앙 여정
- 4/03: 영세자와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

● 사순저금통(Rice Bowl)

- 사순저금통(Rice Bowl)이 성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감일: 3/29(주일)**

● 2025년 봉헌금 증명서 발급

- 신청방법: 사무데스크에서 신청서 작성 또는 이메일(office@tvkcc.org) 신청시 등록번호, 발급대상 영문 이름, 전년도 주일헌금(본인 추정 금액) 기재

● CBLM 가톨릭 성서모임

- 그룹 성서공부반 모집 합니다. (한국어/영어)
- 창세기/탈출기/마르코/요한/사도행전/이사야 Genesis/Exodus/Mark/John/Acts/Isaiah
- 신청/문의: 이성미 안나 Anna Lee (925) 487-6055

●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 여러분의 고유하고도 개성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기, 수필, 시 등 형식의 제한이 없고, 주제도 자유롭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나눔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기명/무기명 게재 모두 가능합니다.
- 작성하신 글은 신부님(dpoc2006@gmail.com)께 보내주시면 됩니다.